

“걷는 옆모습이 가장 파워풀 ”

October 09, 2017 | 전지현 기자



대작 '워킹 인 해크니' 앞에서 있는 줄리언 오피.

(사진 제공=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걷는 옆모습이 가장 파워풀”

영국 팝아트 거장 줄리언 오피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전시
“서울 사람들은 스타일리시”

그림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여딘가를 향해 분주하게 걷고 있다. 저마다 방향은 엇갈린다.

영국 팝아트 거장 줄리언 오피(59)의 대작 '워킹 인 해크니'는 복잡하고 숨 가쁜 도심의 속도를 단순한 선으로 압축했다. 이목구비 없는 옆모습은 도시의 익명성을 상징하는 것 같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개인전을 위해 내한한 오피는 “걷는 사람의 옆모습이 굉장히 파워풀한 이미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대 이집트 회화에서도 옆모습을 주로 그렸어요. 얼굴을 그리지 않고 측면만 담아내는 이유는 사람이 입은 옷이나 걷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작가나 관객 시선과 마주치는 일도 없어요.”

그의 작품 '걷는 사람들' 연작은 서울역 앞 옛 대우빌딩 외벽 미디어파사드에서도 상영돼 한국 대중들에게 친숙하다. 이번 개인전에서도 움직이는 사람들을

담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런던과 호주 멜버른, 서울 거리를 걷거나 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

그는 사람의 특징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요소와 환경을 창의적으로 해석해 그룹화된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작가는 “국가와 도시별로 걷는 모습을 보면 풍부한 색이 담긴 팔레트 같다”면서 “색상뿐 아니라 온도까지 표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순 한국에 온 그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람들을 작품에 담았다. 미술관 유리 외벽에 설치된 길이 24m LED 파사드는 화성 행궁 앞을 오가는 사람들의 유리에 반사된 모습이 그림자처럼 보이게 한 작품. 끊임없이 반복되는 동작으로 다른 보행자를 따라가는 개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서울의 느낌을 문자 작가는 “작업을 위해 한국 작가에게 부탁한 사진 500여 장속의 사람들 중 90%가 매우 스타일리시 하더라”고 말했다. 개인전이 열린 수원에 대해서는 “서울만큼 세련되지는 않지만 활기찬 느낌을 준다”며 “뒀골목의 숨겨진 맛집, 화성 행궁 행차 등을 보면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전시는 내년 1월 21일까지. 전지현 기자